

## 영화와 사람, 그리고 추억을 담은 영화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  
‘시네마 천국’

영화의 특수기는 여름이 아닌가 싶다. 따가운 햇볕과 체온보다 더 높은 복사열에 허벅지 거리는 한낮이면 시원한 영화관에서 폭염을 피하는 것이 하나의 피서법이라서. 그럼에도 국내·외적으로 주목되는 개봉 영화가 썩 눈에 띄질 않는다.

도리어 이 틈새시장을 재개봉이 메우고 있다. 신작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겠지만, 관객의 입장에서 고전이 된 명작을 영화관에서 되돌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다행스럽다.

영화 ‘시네마 천국’(1988)은 워낙 오래 전 영화라, 재개봉된 필름은 영상과 음향을 보정한 4K 리마스터링 버전이다. 이 영화를 두고 ‘이탈리아 대표명작’, ‘세계인의 인생영화’라는 호평이 따랐던 만큼 재개봉에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감상하기 좋은 영화, 세대를 이어주는 감성의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는 것 같다.

영화의 배경은 1950년대 시칠리아 섬. 마을 광장에 르네상스 풍의 ‘영화 천국(Cinema Paradiso)’이라는 극장이 있다. 한창 말쑥을 피울 나이인 장난꾸러기 토토(아역배우 살바토레 카스치오)는 이곳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 ‘시네마 천국’.

(좌)영화제공

에 가는 것이 젤로 좋다. 영사기사 알프레도(배우 필리프 누아레)의 면박에도 영사기 구동기술을 어깨 너머로 익힐 만큼 틈만 나면 영사실에 올라가기 일쑤다. 알프레도는 별 비전 없는 영사 일에 관심 갖는 토토를 말리지만, 결국은 하나씩 영사기술을 가르쳐준다. 어느날 영사기 화재사고로 쓰러져 죽음에 이른 알프레도를 어린 토토는 온 힘을 다하여 가파른 철계단 아래까지 끌어내린다. 그 덕에 알프레도는 목숨을 구했지만 끝내 실명을 한다. 리모델링한 영화관 ‘신영화천국(Nuovo Cinema Paradiso)’에서는 어린 토토가 영사기 돌리는 일을 정식으로 맡게 된다. 알프레도는 영사실에서 토토의 결을 지키는 인생친구. 눈을 잃은 알프레도는 ‘더 잘 보이는’ 지혜로운 해안을 얻고 은연 중 스며드는 그의 멘토링 속에서 토토는 성장한다.

재미있는 것은 영화관의 풍경이다. 영화에 웃고 우는 시칠리아 관객들의 리액션은 풍성하다 못해 허심탄회하기 이를 데 없다.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의 특성, 기질, 사람냄새, 1층과 2층 사이에 놓인 경제적 계급 등을 이 공간 안에 모두 담아 한꺼번에 보여주는 듯했다. 우리에게도 1960~70년대 극장에서 클라이맥스에 박수가 절로 나오고 상영 도중에 필름이 끊어지면 휘파람을 불어대며 항의표시를 했던 때가 있었다. 유일한 미디어이자 오락수단이니 만큼 시칠리아 사람들에게 영화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만큼이었을 것이다. 토토처럼 영화가 전부인 소년을 배출하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 없는. 이들에게 영화관은 삶의 축소판이자 무대인 중요한 장소였다. 감독은 이를 정감 넘치게 스캔한다. 스치듯 관찰하면서도 디테일한 조망을 담아내며 서정적 연출로 끌어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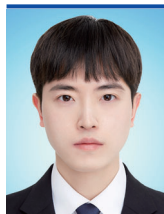
영사실과 객석 사이에 창이 있다. 영사빛을 쏟아내는 이 창구멍은 사자상의 입이다. 역시 이탈리아.. 문화를 지배했던 로마의 흔적은 지중해 인근 어딜 가나 이렇듯 표가 난다. IAPMA(국제종이작가회) 회원들과 베니스의 명성 높은 조각가를 탐방한 적이 있다. 그는 베니스 극장 리모델링 프로젝트에서 조각 부문을 맡았다 했다. 극장 안을 조각상으로 현란하게 설치하되 8세기에 건축된 산 마르코 성당과 광장에 깃든 고전주의에 아우러져야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대리석으로 조각상을 만드는 정석대로 하기에는 무리였고 천장과 코너에는 떨어뜨릴 위험을 방지해야 해서, 재료를 종이로 쓰고 가면처럼 캐스팅 기법을 사용했다 했다. 고전주의 보전 위한 신박한 포스트모던 고전주의였다.

파라디소 극장에는 영상구 외에도 작은 창이 있다. 관객 토토는 이 창을 통해 알프레도와 소통하고, 영사기사 토토는 이 창을 통해 세상을 알아간다. 가장 극적인 창은 성당 고해소 창 너머로 첫사랑 엘레나(배우 아그네스 나노)에게 고백하는 신이다. 회고신에는 토토의 30년 만의 귀향 비행기 창을 매개로 시간이 건너간다.

‘시네마 천국’은 영화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그리움, 추억을 담은 영화다. 신부님의 검열 덕에 잘려나간 필름이 불에 타지 않았고, 그 필름을 이어붙이면 ‘키스 장면 퍼레이드’가 된다. 철거 직전의 극장에서 이를 보는 토토는 구석에 처박힌 봉인된 시간이 일시에 부활함을 느낀다. 토르나토레 감독의 노스텔지어를 통해, 지구 반대편의 관객은 자신만의 향수에 젖어보기도, 살아온 인생을, 살아갈 인생을 짚어보기도 한다.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 박물관까지 뺀 한류, 지역도 활용해야



취재수첩

박찬

취재2부 기자  
chan.park@jnilbo.com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필수 코스로 찾는 ‘핫 플레이스’로 거듭났다.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전통 한복을 입은 인증사진, 인기 굿즈 구매 행렬까지 박물관은 K-컬처와 만난 새로

운 형태의 문화 놀이터로 진화 중이다.

한류 열풍이 박물관으로 뻗어간 건 ‘뮤즈’(뮤지컬+굿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까지 호랑이 배지’, ‘흑립 갓튼 볼펜’ 등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굿즈를 선보이며 대중문화와 연계한 콘텐츠 확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는 어떨까. 국립광주박물관도 독보적인 전통 자산을 지니고 있지만, K-컬처와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만

들기에는 부족하다. 박물관 관람객 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외국인 관광객 유입 측면에서도, 서울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실제 지난해 국립광주박물관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 수는 3899명으로 2023년(6803명)과 대비해 오히려 줄었다. 세계 문화 소비의 주류로 부상한 한류에 편승해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도모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12월 개관 예정인 ‘아시아도자문화관’으로 자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광주·전남 지역은 고려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한국 도자문화의 중심지로서 수백 년에 걸친 역사를 자랑한다. 국립광

주박물관은 이 같은 전통을 바탕으로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을 목표로 삼으며 국내외 도자문화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세계적인 도자 애호가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광주형 뮤즈’를 개발해 광주만의 이야기가 담긴 도자 굿즈, 전시 연계 워크숍, 지역 작가와의 협업 등을 통해 박물관이 ‘기념품 쇼핑의 명소’로 자리 잡게 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국립광주박물관은 박물관문화재단과 협의해 아시아도자문화관에 특화된 문화상품 개발을 진행 중으로 아시아도자문화관 개관일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도자문화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힙트래디

션’(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즐기고 소비하는 추세) 현상에 대한 감각적 해석과 콘텐츠 기획 역량이 중요하다. 단순히 도자문화의 우수성 전파만이 아닌,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해 대중과의 접점을 끌어낼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인기를 끈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피규어나 고려청자 모티프의 아이폰 케이스, 전통을 활용한 스타벅스 MD 등은 젊은 세대가 전통문화에 대해 낯고 먼 것이 아닌, 새로운 무언가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 지역 문화와 연계한 드라마·웹툰·애니메이션과의 협업, 도자기로 만든 K-팝 아티스트들의 상징 오브제 등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